

주제회의[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지속가능발전과 지구적 위기: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2022. 10. 12.(수) 16:00-18:30

주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인권정책연구소

배경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 지속불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채택, 1992년 리우환경회의, 2015년 유엔 SDGs의 채택 등 다양한 노력을 다 해왔다. 특히 유엔 SDGs의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 프레임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변혁적 노력을 시도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는 기관과 단체가 연대해 지난 3년간 '유엔 SDGs와 인권' 세션을 열고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 2019년 UN SDGs와 인권-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 2020년 SDGs와 인권 통합 이행점검체계 구축 방안
- 2021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2021년 논의 결과, 다음의 실천의제가 제안되었으며, 이를 확산하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2021년 제안된 실천의제

- 노동자, 농어민, 장애인, 채식인, 미래세대 등 각자의 위치에서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결국 같은 구조 속에 있고,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광범위하고 긴밀하게 화석연료와 연결된 거의 모든 기술, 규범, 관행 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SDGs 속의공론화장을 통해, 경제·사회·환경·행정·재정 등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시각 형성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참여와 연대와 협력의 집합적인 행동으로 기후 정의와 사회정의를 함께 실현해나가야 한다.



목표

본 포럼을 통해 기후정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세션의 주제를 '지속가능발전과 지구적 위기'로 설정하고,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구적 위기 극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

1.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위기(사회 양극화,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 환경위기, 주 거난 등)의 양상과 체제 전환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2. 독일 베를린시 주택사회화 운동을 사례로 SDGs 지표를 통해 진단하는 도시 안에서의 시민권 위기와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